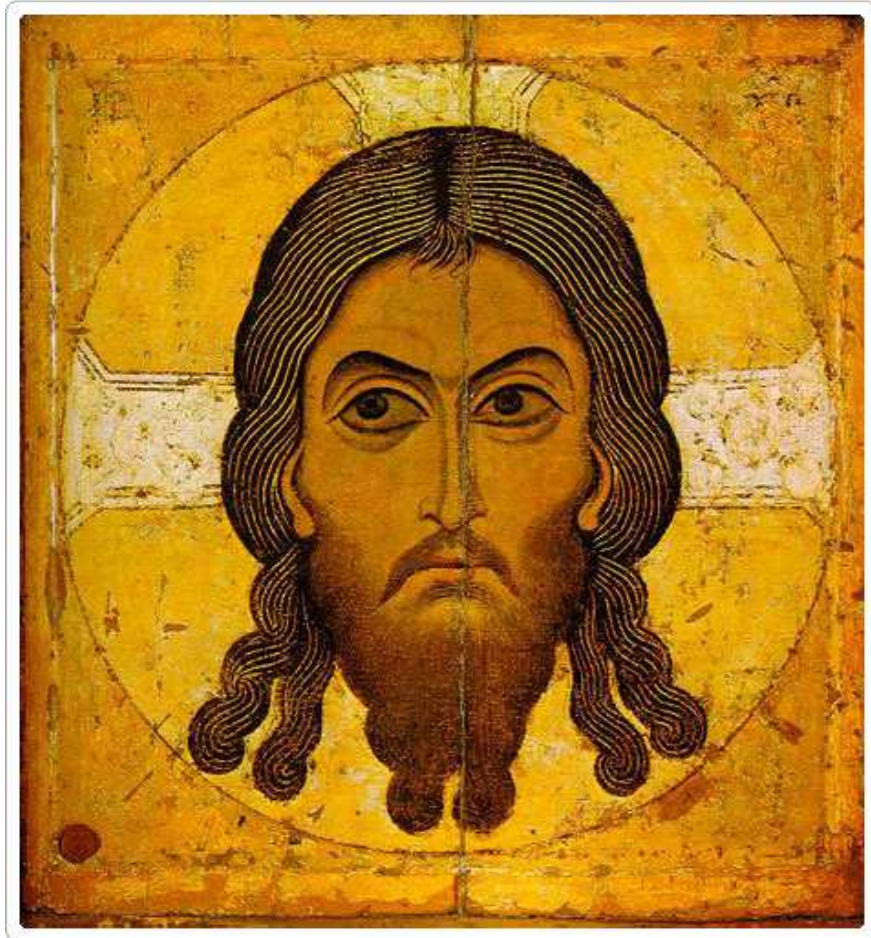


2015 3. 22 사순 제 5 주일

제 1 독서 : 예레미야 31,31-34 < 나는 새 계약을 맺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

제 2 독서 : 히브리 5,7-9 < 예수님께서서는 순종을 배우셨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복 음 : 요 한 12,20-33 <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스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오늘 사순 제 5 주일을 보내면서 , 제가 드리는 강론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반성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 생각이, 내 방법들이 나한테는 물론 마땅하게 여겨지고 좋은 방법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이 잘못 된 것 일때

에는 하느님께서서는 그 방법이 잘못이라고 하시면서, **성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라고 여기지, 실천으로 옮기지를 않습니다. 오늘 제 1 독서에서 들었듯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미 600 여년전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삶을 지적 합니다.

하느님께로 돌아 와라!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정통파들은 십계명만 지키고 율법만 지키면 하느님을 믿는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의 중심사상인 사랑을 몰랐던 것입니다.** 첫째 계명 부터 셋째 계명까지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 즉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네째계명부터 열째계명까지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 형식은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느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때에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이 니네베 사람들 처럼 죄를 깨닫고 하느님께 잘못을 빌었다면, 하느님께서서는 바빌론 왕국을 통해서 그들의 본거지를 싹 쓸어 버리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하느님의 집인 성전까지 싹 쓸어 버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나의 뜻은, 너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자신도 생각을 달리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예언자들은 누구냐? 하면, 내 앞에서 사랑으로 이야기 해 주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의 예언자들인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뒤에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면서 형제들의 흉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싫다고 합니다. 왜냐? 바로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나의 판단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나의 뒤에서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는 오히려 더 잘 대해 줍니다. 나중에는 누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냐 하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형제들에게 지적을 할 때에는 사랑으로 다가 가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사랑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기보다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쏘아 버립니다. 우리가 진정 이웃의 형제를 위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잘못 했을 때에 사랑으로 감싸 주면서 좋게 그 잘못을 일러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즉 이웃을 가르치는 것,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칠때에는 더욱 공손하게, 같이 안아 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오늘의 복음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과월절 6 일전에 예수님께서 올리브동산에 도착하시는 그 과정입니다.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준비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 제발 저를 죽지 않게 해 달라고,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뜻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시지요. 즉 하느님의 뜻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고, 이것은 싫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십시오 청하지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안해 주시냐!고 떼를 쓰기도 하지요.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 해 두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내 자신을 그분께 전적으로 내어 놓는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 질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바뀌어 질 것입니다. 사순은 이제 오주째로 접어들입니다. 이제 사순시기도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얼마만큼 주님께 다가가고 있는지?** 오늘아침 우리의 한인미사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120 명이나 되는 본당의 학생들이 함께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 박 3 일, 정확히는 2 박 2 일의 피정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 많은 어린 학생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것을 모두 포기하고, 인터넷, 게임 또 자기네들끼리 속삭이고 싶은 모든 것들을 모두 끊어 버리고 성당에서 2 박 2 일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고 있지만 한국말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일이 아니라 이 사순시기를 보내며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깊이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자신들의 신앙생활도 한번 또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새 계약을 맺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31,31-34

31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32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33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 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 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34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편 51(50),3-4.12-13.14-15(◎ 12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

<예수님께서서는 순종을 배우셨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5,7-9

7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 주셨습니다. 8 예수님께서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9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한 12,26 참조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 요한이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 12,20-33

20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21 그들은 갈릴래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22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2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5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26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27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28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29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30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31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32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

33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